半導體칩 保護 特別法 내년 制定

半導體칩 保護條約 加入도 檢討중

정부는 半導體칩 回路소자 배치설계(Layout Design)를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半導體칩 保護特別法(가칭)을 내년에 制定키로 했다.

또한 내년 5월 美國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WIPO 회원국 외교회의에서 확정될 半導體칩 保護條約에도 加入할 계획이다.

特許廳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半導體칩의 回路배치 설계를 새로운 知的所有權으로 인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칩保護문제가 韓·美간 通商현안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半導體칩 保護를 위한 特別法을 制定키로 했다는 것.

特許廳은 이번 特別法 制定을 통해 出願人에게 최초 商業的 利用日로부터 10년동안에 걸쳐 ▲獨創的인 배치설계 복사금지 ▲복사된 배치설계 배포금지 ▲복사된 배치설계를 결합한 半導體칩 유통금지등의 權利를 부여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特別法을 통해 半導體칩 설계를 保護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을 비롯 日本·스웨덴·英國·西獨등 8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편 特許廳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열린 WIPO 半導體칩 保護條約 制定會議에서 최종 확정된 國際條約에도 加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特許廳이 半導體칩 回路소자배치를 知的所有權의 하나로 保護해 주기 위해 特別法을 마련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관계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또 科技處에서는 「美國측의 압력으로 特別法制定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국내업계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를 우려, 가능한한 그 시기를 늦출 계획이었다」며 特許廳의 이같은 움직임에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半導體 特許權 침해문제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特許廳이 엉뚱하게 소관업무를 이유로 서둘러 特別法을 制定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각계 意見수렴

特許廳은 「半導體칩 保護法」 마련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28일 半導體칩 保護制度에 관한 國際動向설명회를 겸해 각계의 意見을 수렴했다.

佛대사 僞造商標 流通근절 要請

朴청장 國內 商標管理人 指定 권장

프랑스가 우리 정부에 대해 僞造商標流通행위를 근절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特許廳에 따르면 「위베르 드 라 포르텔」 駐韓프랑스 대사는 최근 朴弘植 特許廳長을 만나 「韓國內 僞造商標 流通행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서울의 梨泰院시장은 물론 慶州등 관광지의 호텔 및 紀念品 매장으로까지 확산돼 3천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公開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韓國정부가 올림픽전에 이를 근절해달라」고 要請했다는 것.

이에대해 朴弘植 特許廳長은 「特許廳을 비롯한 경찰과 大韓商議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계몽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개인적인 재산인 商標權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保護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商標權者가 국내기업에 商標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국내에 商標管理人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조사·단속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㊇〉